
청년 일자리 정책 발전 모색을 위한

의 정 토 론 회

- 일시 : 2020. 1. 17.(금) 14:00
- 장소 : 예산문화원 강당
- 주관 :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충청남도의회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방한일 의원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더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올해 첫 의정토론회로 ‘청년 일자리 정책 발전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도민 여러분과 내외귀빈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사회는 고령화와 과소화 문제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유입하려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성 있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청년의 기준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15~29세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고용보험법에서는 15~34세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서는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정해져 있는 청년의 법적 기준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기준은 제각각이지만 여러 법을 통해 지원하며 청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9일, 국회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을 계기로 우리 시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다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오늘 토론회에서는 충청남도 청년 일자리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청년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의 발전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도 차원에서 지역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며, 어떠한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청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다양한 논의는 충청남도의 청년 정책을 보다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자주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쉽게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 사회는 청년을 통해 다시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방한일

의정토론회 개요 및 계획

I 개 요

- 일 시 : 2020. 1. 17. (금) 14:00
- 장 소 : 예산문화원 강당 (1관 1층)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신청 : 방한일 의원)
- 주 제 : 청년 일자리 정책 발전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 인 원 : 100여 명 (도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II 진행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 개 회 식 >			
14:00~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등	사회자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14:05~14:10	5'	인사말씀, 내빈소개 등	방한일 의원
< 토 론 회 >			※ 진행 : 방한일 의원
14:10~14:25	15'	주제발표	김기흥 책임연구원
14:25~15:35	70'	지정토론	토론자 6명 (각 10~12분)
15:35~16:05	30'	청중토론	참여자 전체
16:05~16:10	5'	정리 및 폐회	좌장 (방한일 의원)

목 차

■ 주제발표

1. 충청남도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 김기흥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책임연구원) 7

■ 지정토론

1.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청년 일자리 정책
- 김영준 ((주)행복한여행나눔 대표) 21
2. 청년 정책 방향과 지역사회의 과제(청년의 지방 이주와 정착을 중심으로)
- 신소희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연구원) 34
3.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정책 활성화 방안
- 강석주 (충청남도 청년정책과장) 48
4. 예산군 청년 정책
- 강선구 (예산군의회 의원) 56
5. 농촌으로 오고 싶었던 z에게
- 정민철 (젊은협업농장 상임이사) 60
6. 청년 농업인의 판로 방안
- 김면중 (예산군 청년농업인협의회 부회장) 67

주제발표

충청남도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 김 기 흥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책임연구원)

충청남도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2020. 01. 17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기흥

kimkh@cni.re.kr

청년은 누구인가?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청년기본법'(2020년 1월 9일 제정안 국회 통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4H: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변경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만 39세 이하
- **일본** 농업차세대인재투자기금(구 청년취농급부금): 만 45세
- **유럽** 유럽연합통계청: 만 35세 미만, 유럽 농촌개발규정: 만 40세 미만
- 사업별로 임의로 사용
- 지역 사정 고려한 다양한 청년 범위 가능?

청년 정책 추이

- IMF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 2003년 청년실업 종합대책 발표
- 2004년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제정(공공기관 중심으로 고용촉진 유도)
- 2009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정('청년실업'에서 '청년 고용' 문제로 적극적 대처)
- 2013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 2017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사람중심 일자리, 청년일자리대책 포함)
- 2020년 청년기본법 국회통과(1. 9)

3

충청남도 청년 사업_취업지원형

구분	정책명	키워드	담당
교육훈련, 체험,인턴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청년학교, 커뮤니티)	상호간 네트워크 활성화	일자리노동청년과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육성	일자리 창출, 인재양성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도제 육성	사회적경제의 우수기술전수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구인구직 맞춤형 일자리 제공	일자리노동청년과
	충남 지역대학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사업	지역대학 인재 취업역량강화	
	희망이음 프로젝트 (중소기업 인식개선 프로젝트)	특성화고교 및 대학생 지원	
	청년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운영	문화예술인력 발굴	문화정책과
	도시청년 농업.농촌캠프 운영	농업농촌 이해도 증진	농업기술원 귀농귀촌팀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신규농업인 교육훈련비 지원	
전문분야 취업지원	GTEP(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	무역 전문인력 양성	국제통상과
해외진출	해외 복수학위제(Dual Degree Program)	캐나다 대학 학위과정 이수 및 취업연계	기획평가팀
	해외인턴십	해외 대학 인턴십 및 취업연계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4

충청남도 청년 사업_창업지원형

구분	정책명	키워드	담당
경영 지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청년상인 육성	소상공기업과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사업	청년CEO500프로젝트 수료기업 대상 맞춤형 마케팅 지원	일자리노동청년과
	문화산업 분야 청년 인재양성 및 창업지원	문화컨텐츠 창업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창농스쿨	창업역량, 리더십 교육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	국제농업 및 신기술 습득 교육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창농 및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지원	농림부, 농업기술원
자본금 지원	초보농부 경영실천 농장 운영	영농실천농장 임대지원	농업기술원 귀농귀촌팀
	1839청년창업프로젝트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연간 최대 1,500만원 창업자금 지원)	일자리노동청년과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시설기반지원(1인당 4천만원)	식량원예과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청년 창업자 지원(최대 1억원 이내)	일자리노동청년과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5

농촌의 청년, 왜 중요한가?

➤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농촌 공동체 유지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

➤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메카, 홍성군 홍동마을

- 1970년대 시작되어 1990년대 오리농법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 초창기 유기농업 실천 농가 평균 나이는 71세(2015년)
- 홍성군 농가인구의 고령화율 2010년 35.1%에서 2015년 43.%로 증가
- 한편, 젊은 귀농귀촌인의 꾸준한 증가세
- 홍동면 문당리 유기농업의 미래는?

6

농촌의 청년, 어떻게 구분되나?

- **청년 농부**: 농사짓는 청년. 예시,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사업'에서 사용, 처음에는 청년 귀농인이 대상이었으나 최근 청년 후계농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청년 신규 취농**: 일본에서 쓰는 용어로 농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한다는 의미로 일본에서는 신규자영농업취농자(경영승계형), 신규고용취농자(법인 등 고용 형태), 신규 참입자(귀농인) 3가지 유형 포함
- **청년 창농**: 영농 기반 여부에 따라 승계창농, 신규창농 등
- **농촌 청년**: 농촌에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사에 전념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 관련된 일이나 마을 사무장 일 등 담당하는 청년, 토박이 청년
- 부모의 농업 기반을 물려받은 '**후계농업인**', 기반 없는 '**귀농인**', 본격적으로 귀농하지 않았으나 귀농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예비 청년 귀농인인 '**귀농인이 아닌 자**'로 구분하고자 함

7

충남의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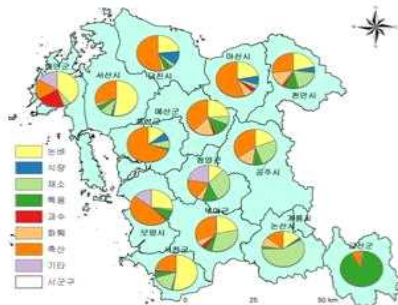
구분	성격	후계농업인	귀농인	귀농인이 아닌 자
농업	창업	-4-H영농정착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창농 공모 사업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농업안전지원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 -귀농귀촌정착지원(귀농귀촌설명회)	-귀농귀촌정착지원(귀농귀촌설명회) -(대학생)농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
	교육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4-H대학운영(2016년부터 창농스쿨 전집) -청년 농업인 전문가양성 PETC 프로젝트 -영농승계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4-H 육성을 통한 네트워크 활동지원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멘토멘티제) -귀농귀촌 교육	-도시청년 농업농촌 캠프 운영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농가숙박형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 교육 -(고교생)특성화농고 인력육성 프로그램
농업 외	소득			
	주거		-귀농귀촌정착지원(귀농인의 집) -귀농 주택자금 지원	
	공동체			

출처: 김기홍(2018),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사례, 농촌지도와 개발, 제25권 제3호, pp. 161-173

8

청년 농업인, 어떻게 다른가?

- 만 34세 이하 4-H 674명, 시군별 전수 조사 297명, **총 971명**(2016년) 대상
- 재배작목은 **축산(30.1%)**, 논벼(22.8%), 채소(20.8%), 특용(13.3%) 순으로 높음
- 축산의 경우, **홍성군 69.6%, 아산시 55.6%, 당진시 52.9%, 보령시 47.5%, 예산군 38.1%**
- 귀농인 40세 미만,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선정 31명(2016년) 대상 조사 결과
- 재배작목은 **채소(47%)**, 논벼(16%), 특용(13%), 과수(11%) 순으로 높음



<충남 만 34세 이하 4-H 영농 현황>

출처: 김기홍(2016),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추진 방향 전략과제, 충남연구원



<충남 만 39세 이하 귀농인 영농 현황>

출처: 김기홍(2016)

✓ 같은 청년층이어도 **후계농업인과 귀농인은 종사형태가 다르며, 다른 지원 정책 필요**

농촌 지역 청년이 말하는 필요한 지원?

- **정서적 문제:** 농업에 대한 편견, 텃세와 외로움 등
- **물리적 문제:** 농지, 주거, 일자리 문제 등
- **필요한 지원:** 교육(학습회, 단계별 영농교육, 실천농장), 공공임대주택, 체류형 멘토멘티제, 농지임대지원,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등

	A (후계농업인)	B (후계농업인)	C (귀농인)	D (귀농인)	E (귀농인·이·년자)	F (귀농인·이·년자)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 에 대한 의견	-농지임대 -멘토 -연구회	-기존 농민과의 문화적 갈등 -농촌 가치 이해 -농촌 복지 홍보 -멘토, 인턴제 확대 -소농청년층육성	-토지매매, 임대 -농업기술센터에 만 의존하기 힘들 -농지, 취득세 등 관련 정보 연계 -청년 연령층 확대	-다양한 교육과 정금선무 -귀농인의 집 등 임시거처 -공감대 및 정보 공유를 위한 단체 활동	-농지임대 -귀농인의 집 등 임시거처 -지역주민과 다양한 교류 채널	-농지임대 -농촌 내 일거리 -거처 문제

출처: 김기홍(2018),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사례, 농촌지도와 개발, 제25권 제3호, pp. 161-173

10

일본의 농촌 일자리 정책 기본 방향

- **배경:**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도시보다 빠르게 진행
- **기본방향:** 농업구조개혁으로 중심적 농업인력으로 토지집적, 농업관련 사업으로 고용과 소득 보장으로 농촌 활력 창출
- **농촌취업기회확대에 대한 문제인식**
 -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양한 역할: 지역 경제 뒷받침은 물론 전통 기술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생산기반인 논, 전통적인 식문화, 아름다운 농촌풍경 등 잠재력
 - 지역고유문화 전승에 대한 우려: 지역의 농업경영이나 기술, 농지나 농업용수 등 중요한 자원의 소실과 생활 인프라 붕괴
 - 농촌지역이 가진 가치 창출 노력: 의욕 있는 농업인력에게 농지집적(산업정책), 지역공동체에 의한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 유지(지역정책)

(농림수산성, 농촌의 취업기회 확대에 관한 검토회, 2016)

11

- **세부 관련 시책**
 - 농지중간관리기구의 활용 등을 통한 농업구조개혁에 따라 중심적인 농업인력의 농지이용집적 가속화
 - 농촌지역 취업기회 창출을 위한 '농촌지역공업 등 도입촉진법'(1971년 법률제112호)(통칭, 농공법)
 - '지역 산업집적의 형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2007년 법률제40호)
 -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창출 및 지역의 농림수산업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2010년 법률제67호)(통칭, 6차산업화지산지소법)

- **세부 실천**
 - 기본: 농지집적, 지역의 자원 보전 및 지역사회 유지 노력
 - 소득향상: 최첨단 기술 활용, 농업경영의 조직화, 농업경영인 육성(농업), 지역자원 활용한 내발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농촌)
 - 지방이주를 위한 출생률 회복과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업유치, 기업의 본사 기능이전 등 '일'창출과 '사람'흐름 연계 선순환
 - 지역부흥협력대(1~3년간 체제비, 활동비 지원. 절반이 지역 정착)
 -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

12

일본 취농 지원 정책 추이

- **1994년 취농지원자금 :**
 - 청년취농자 무이자자금으로 대부사업 형태
- **2008년 농 고용사업 :**
 - 고용취농자 육성 목적. 농업법인 등이 실시하는 각종 연수에 필요한 비용 조성 사업
 - 연간 최대 1,200만 원, 최장 24개월, 신규취농자에 대한 연수비(월액수 최대 97만 원) 및 지도자연수비(연간 최대 36만 원)
 - 지도자의 인재육성방법 등 연수참가비와 교재비, 교통비 등 비용 청구 가능
- **2012년 청년취농금부금사업(현재, 농업차세대인재투자사업) :**
 - 만 45세 미만 귀농희망자 대상
 - 준비기간 2년간(준비형)과 경영개시 후 5년(경영개시형)으로 총 7년 가능. 연간 1,500만 원
- **신규취농자육성지원사업 :**
 - 농업경영자육성교육사업 : 지역의 농업교육기관 지원
 - 신규취농의육환기 및 상담 등 지원사업 : 대학생, 고등학생 대상 교육기회 제공 및 취농전 구인정보 제공과 단기취농체험 실시
- **관련 기관과의 연계**
 - 도도부현, 시정촌, 청년농업자등 육성센터(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농지중간관리기구(농지중간관리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 농업위원회, 도도부현 보급지도센터, 지역농업재생협의회 등

13

일본 교토 사례

- **교토부 농업회의(통칭: 교토 어그리 21)**
 - 1970년 : 사단법인 교토부 농업개발공사로 설립
 - 2012년 : **공익사단법인 교토부 농업종합지원센터**
 - 2015년 : 교토부 농업종합지원센터와 교토부 농업회의, 교토부 농림수산부의 연대 강화를 위해 '교토부 농업농촌창업센터' 설치
 - 2016년 7월 : '교토 농업인재육성센터' 설치로 '인재 양성'에 주력
 - 2018년 7월 : '교토부 농업회의' 합병으로 현재 이름으로 통합
- **주요 업무**
 - 첫째, 농지중간관리기구 업무로 농지집적 관련 사업 담당
 - 둘째, 신규취농지원사업으로서 잡카페 운영, 인력양성 실천농장 및 청년농업인 경영력 향상 지원 사업 담당
 - 셋째, 6차산업화 및 농업비즈니스 코디네이터 추진 등 사업
- ✓ **땅 → 신규취농 → 농업비즈니스를 종합적으로 관리**

14

일본 교토의 취농 관련 지원 제도



15

지역에는 어떤 청년들이 필요한가?

(1) 지역 농업의 승계자: 농사짓는 청년

- **지역 농업의 전수:** 지역이 처해있는 환경에 맞는 지역 농업을 실제 해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야 함
- **인적 네트워크 형성:** 농업을 지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보의 근원지가 되며, 든든한 이웃 만들기 과정 필요

(2) 농촌 지역 공동체의 일꾼: 농촌 청년

- **농촌 사회의 이해:** 지역 문제를 이해하고 농촌 사회와 부대끼는 과정 필요
- **지역 문화의 계승:** 지역을 둘러싼 자연 환경과 그것이 만들어낸 지역 고유의 문화의 가치에 대한 이해, 농촌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 유지

16

청년 정착 지원,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나?

(1) 지역 단위 논의 필요: 당위성

-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고 무엇을 지켜야 하며 등등 지역과 지역 농업의 본연의 모습을 위한 지역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의 논의(지역 법인, 협동조합, 농지 확보, 거주 기반, 공동체 활동 등)

(2) 타 프로그램과 연계: 지속성

- 다양한 타 사업과 연계하고 체계적인 과정으로 정립하는 일 필요(농업사업과 농업외 사업의 연계_충남 친환경청년농부사업, 도시청년 초보농부 실천농장+지역착근형 인재육성,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 등)

(3)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확장성

- 농업, 농촌, 복지 문제 등 확장된 역할(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회적 농업, 커뮤니티 케어, 적정기술, 각종 마을 사업 등_신활력플러스, 균형발전사업 등)

17

청년 정착 방향과 과제

- **기본 인식:** 지역이 가진 고유 자원, 가치 재인식 + 전승을 위해서는 지역에 다양한 청년이 필요하다!
- **체계 정비:** 충분한 진로 탐색과 다양한 경험 연계 과정 + 일자리 창출 + 후속
- **기반 정비:** 일자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거 + 복지 + 문화 + 네트워크 등 다양하게 연계, 다시 일자리(창출)로 연계
- **제도 정비:** 통합된 청년 관련 기구 및 조직 필요
- **지역 논의:** 새로운 인력 맞을 준비, 지역에서 하자! 지역 단위 계획 + 지역의 다양한 조직과 연계(일본, 사람농지 플랜)

18

충남 농촌 청년 정착 과정 로드맵



19

감사합니다!

지정토론

1.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청년 일자리 정책

- 김영준 ((주)행복한여행나눔 대표)

2. 청년 정책 방향과 지역사회의 과제

(청년의 지방 이주와 정착을 중심으로)

- 신소희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연구원)

3.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정책 활성화 방안

- 강석주 (충청남도 청년정책과장)

4. 예산군 청년 정책

- 강선구 (예산군의회 의원)

5. 농촌으로 오고 싶었던 z에게

- 정민철 (젊은협업농장 상임이사)

6. 청년 농업인의 판로 방안

- 김면중 (예산군 청년농업인협의회 부회장)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청년 일자리 정책

김 영 준

(주)행복한여행나눔 대표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 본 청년 일자리 정책





지역 여행 콘텐츠 개발
 팸투어 운영
 귀촌, 귀어, 귀농 여행
 이벤트, 교육캠프 기획 운영
 SNS 홍보 마케팅



대면인터뷰

청년 일자리 정책의 인지도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

직업을 선택할 때 요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 정책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소감 및 추천의향

청년 일자리 정책 인지도

취업 전 일자리 정책

청년취업아카데미, 일 학습 병행제,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해외취업지원

취업 후 일자리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급, 임차보증금 지원

기업 혜택 일자리 정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정책 자체를 잘 모르고 있음!

취업 전 일자리 정책

청년취업아카데미, 일 학습 병행제,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해외취업지원

취업 후 일자리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급, 임차보증금 지원

기업 혜택 일자리 정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정책 자체를 잘 모르고 있음!**

카카오톡, SNS채널 홍보, 입소문

실시간 검색창 정책 홍보

대면인터뷰

청년 일자리 정책의 인지도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

직업을 선택할 때 요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 정책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소감 및 추천의향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

너무 필요해요!

수도권과 지역의 균등화, 공정한 출발선,

필요하지 않아요!

역차별 받고 있는 청년도 있어요

일 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책이 아닌 현실에 맞는 지역청년정책

다양하고 유연하게

대면인터뷰

청년 일자리 정책의 인지도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

직업을 선택할 때 요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 정책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소감 및 추천의향

직업을 선택할 때 요소

시간 Time

정시출근과 정시퇴근

업무시간 중 개인적 활용 자유시간(은행업무, 병원 등)

아근 싫지만, 필요하다면 수당 보장

직업을 선택할 때 요소

비전과 전공

지역에는 다양한 전공의 직군이 없어요

회사, 임원, 대표자, 상사의 가치관

회사와 청년의 시너지효과

직업을 선택할 때 요소

복지

근무환경 = 만족도
몇 년 근무 시 오랜 시간의 휴식
자유 출근제
휴식공간 마련
점심식사 제공
교통비 지원
상사와의 원활한 소통

대면인터뷰

청년 일자리 정책의 인지도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
직업을 선택할 때 요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 정책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소감 및 추천의향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 정책

주거비

(지역주도형일자리지원사업 청년근로자의 경우 100%만족)

교통비

장기렌트 시 (33%자부담, 33%기업, 33%정부)

버스, 택시 교통카드 지원

네트워크

사람들, 모임, 네트워크 활동 지원

대면인터뷰

청년 일자리 정책의 인지도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

직업을 선택할 때 요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 정책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소감 및 추천의향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소감

고정적인 수입과 주거비가 특히 지원되어서 좋아요
지역 청년기업만큼 청년이 근무하기가 좋아요
같이 만들어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래 친구, 동료, 청년들과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급여가 동결되어 미래를 바라보기 힘든 것은 불안입니다.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의 역량에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사업이 종료된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월급이 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홍성군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홍성군청년창업네트워크 구축사업

청년창업기업 + 청년근로자 매칭
(인건비+주거비+네트워크 활동비)

홍성군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홍성군청년창업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역

물가, 소득, 임금수준, 생산규모, 재정자립도, 근무환경, 교통, 지인채용, 영세

협상력과 조직력의 기반마련

지역에는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된다.
청년들은 고생을 안하려고 한다.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하니, 공공일자리 수를 늘리자.
대기업 산업단지에 투자하면 일자리는 확대된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

'맞춤형 일자리'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과
청년들 개개인의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청년 정책 방향과 지역사회의 과제

[청년의 지방 이주와 정착을 중심으로]

신 소 회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연구원

충남 청년 일자리 정책 발전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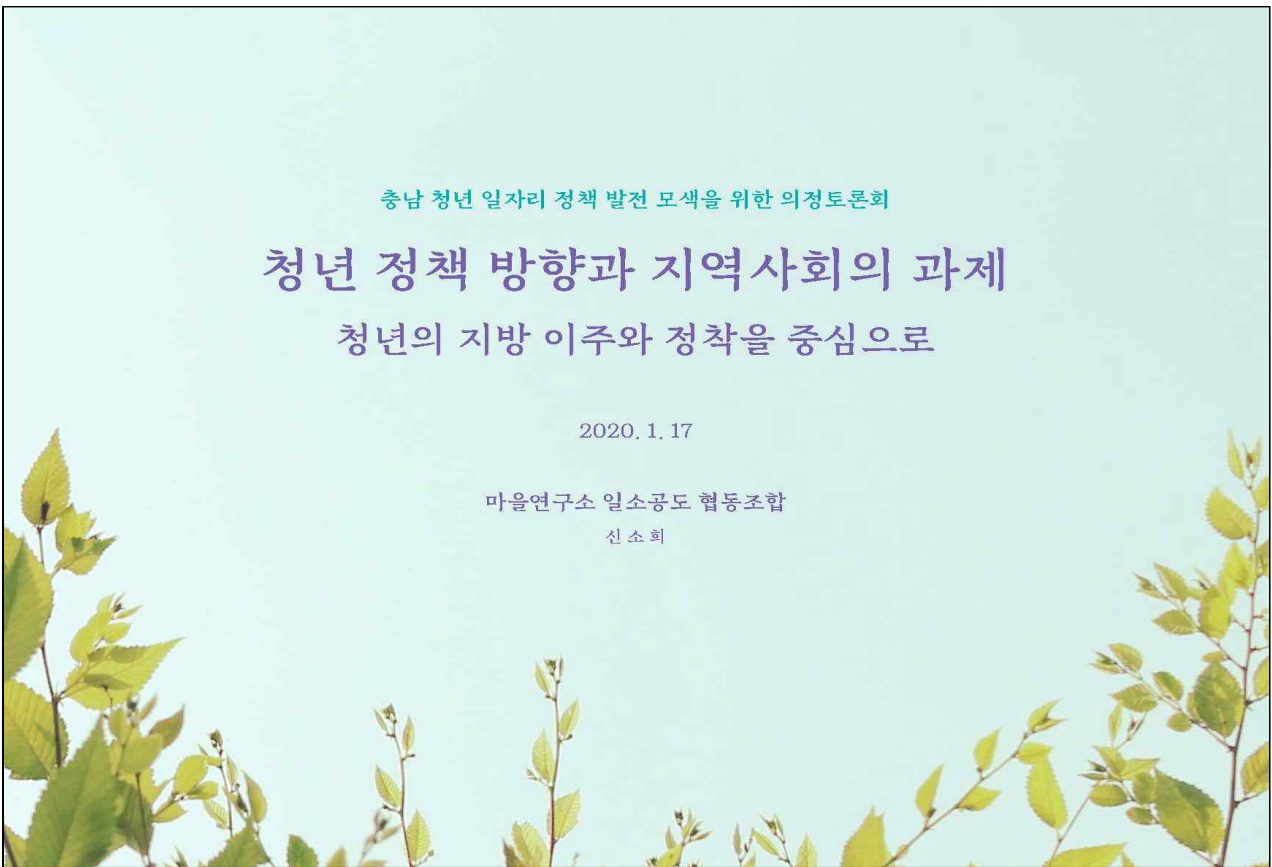
청년 정책 방향과 지역사회의 과제

청년의 지방 이주와 정착을 중심으로

2020. 1. 17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신 소 회



충남
청년
일자리
정책
발전 모색

충남 > 시·군 > 읍·면·동 >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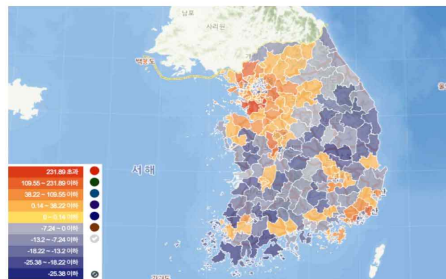
청년의 문제 > 지역의 문제
For Youth > With Youth

일자리 > 일 > 삶
> 자리 >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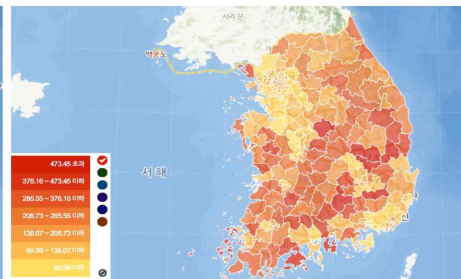
정책 > 과정
>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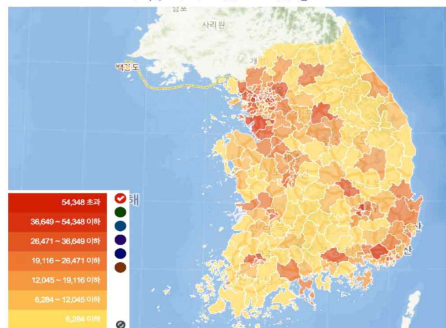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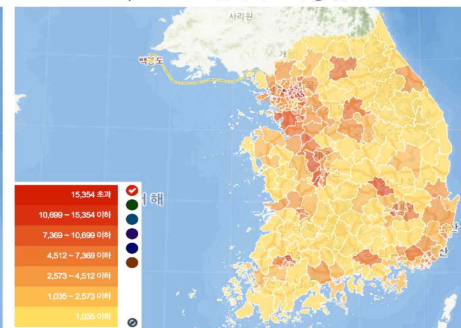
노령화지수



사업체수 분포 현황



2, 30대 1인가구 여성인구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을스

청년

성인도래청년기, 변화와 탐색의 시기

Jeffery J. Arnett,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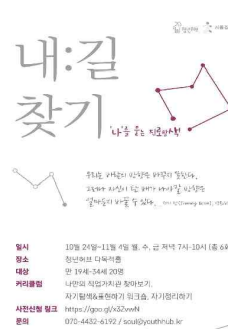
전통적 성인기 역할 수행 시기 연장

10대 후반 ~ 20대 후반: 사회적 역할과 규범적 기대 측면에서 독립적인 인간발달시기로 규정

다양성이 아닌 불안정성instability, 이동가능성the possibility of mobility이 높은 시기,

자기충족적 기질self-sufficient, 정체성 탐색

주경필, 2014



일습

지방+청년

지방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정향선문, 2016, 2, 18

일습

지방+청년

진로장벽의 종류와 특성

내적장벽	낮은 자기 이해도	자신의 진로에 관한 흥미, 적성, 능력 등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가치충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회사 또는 다른 사람의 가치가 서로 다른 상황에 부딪히는 것
	사회적 인식	시도를 비장려하는 주변 사람들(가족, 친구 등)의 걱정, 조언을 듣거나 대학 이력 등을 의식하는 것
	시간적*경제적 비용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드는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생각하는 것
	지방 인프라 부족	비서울권에서 느끼는 상대적 인프라 불균형 문제
외적장벽	공교육 제도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진 인문계고 학생들이 느끼는 자아탐색 시간의 부족
	접근성 부족	개인의 상황적 한계로 인한 정보, 경험의 기회 부족
	정보 부족	특수한 직업과 관련된 정보가 많이 없는 것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잘 모르는 것
	불확실성	개인이 설정한 진로, 또는 직업 자체의 특성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것일 경우

(주)커리어투어,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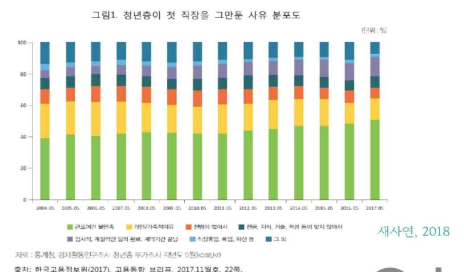


일자리

퇴사하는 청년들

항목	한국평균	비교	OECD
실업률	4.5%	<	5.4%
청년실업률	9.5%	<	11.1%
고용률	66.6%	≐	68.4%
청년고용률	42.1%	≐	41.9%
이직률	31.8%	>	16.9%
평균근로시간	1967시간	>	1759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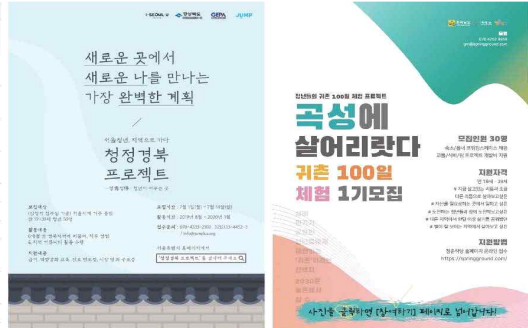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 2019.4.15.; 2019.4.10.; 통계청, 2019.2.13.; OECD, 2018; 2019에서 발제 및 재구성 * 한국 청년지표 15~24세, OECD 청년지표 15~24세
이종원 외, 2019



정책

사업명	주관기관	지원내용								분야
		정보 제공	교육	취업	생활비	주거	용자	창업 보조	기간 (1년간)	
청년창업농 영농창업지원	농식물부				○				장기	농업
청년농업 장기교육농장	농식물부		○		○				단기	농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지원	농식물부		○						단기	농업
귀농농업창업 및 주거구입지원	농식물부						○		단기	농업
귀농인 정착지원	강원도						○		단기	농업
청년창업농지원	강원도		○						단기	농업
청년창업농지원	충청남도		○		○				단기	농업
청년농부 물결물조성	충청남도		○						단기	농업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충청남도	○	○						단기	농업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충청남도	○						○	단기	농업
귀농창업활성화	농식물부							○	단기	농업
청년창업공동체육성	원주군							○	단기	비농업
청년인턴사업	원주군							○	단기	비농업
청년대아하우스	원주군					○			단기	-
청년창업농육성	전라남도							○	단기	농업
농촌청년사업가양성	전라남도							○	단기	농업
청년농산입장지원	전라남도				○				단기	농업
청년농산입장지원	경상남도		○					○	단기	농업
청년 귀농인턴지원	포항시			○					단기	농업
서울농장	서울시	○	○			○		○	장기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행안부			○				○	장기	비농업
도시청년사물마련	경상북도				○			○	단기	비농업
농촌귀소(귀농)인력 전라북도	전라북도			○					단기	비농업
1939행복공동체	충청북도		○					○	장기	비농업
강화청춘마을	노동부		○	○					단기	비농업
목포 콘텐츠 마을	행안부		○			○		○	단기	비농업

출처: 마을학회 일스공도, 2018, 청년의 지방 이주 지원 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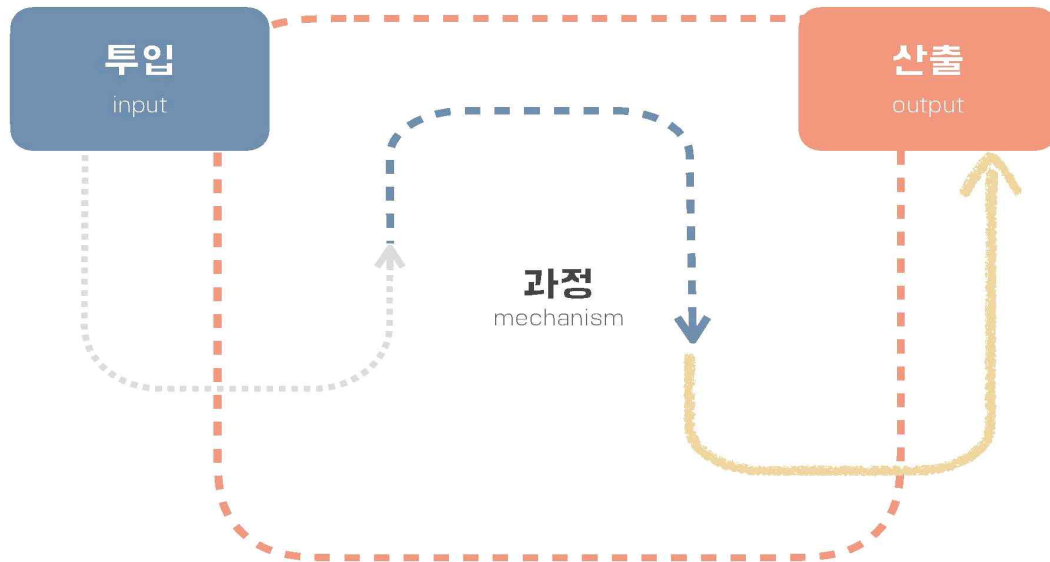
일스

정책



일스

정책



일습

청년의 지방이주와 정착



마을학회 일소공도, 2018

일습

청년 정책

많고 다양해졌다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 민관협력 경험
다양한 주제와 대상

하지만 여전히, 하던 곳만 하고, 되는 곳만 된다

광역시 / 시군 단위 정책 변화 > 청년정책팀 신설, 기본계획 수립, 정책사업 시행 등 : 전라북도 완주, 경상북도 등
그를 수행할 민간 주체의 역량이 영향을 미침
지역내 기관별, 부서별 중복 수행, 경쟁 유치하기도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무연고, 무자본, 무기력,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는 존재: 지원, 수혜의 대상
유치 인구: 귀농귀촌 사업 대상, 지역 인구 증가에 기여
지역혁신리더: 정책에 빠진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시킬 주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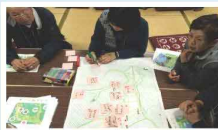
지역사회와 어떻게 만나는가

아름다운 자연환경, 힐링의 장소, 여유롭고 한가한 생활
각종 지원, 혜택이 '뽕뽕한' 곳
백지 공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
기존 지역사회와의 진정성 있는 만남, 협력의 가능성

일습

외국 사례

일본 노토유학 能登留学

 2019.10.25 UP ハトムギの6次化マーケティングを通じて農家の所得を... 大学生向け 新卒者向け 長期インターンシップ	 2019.10.02 UP 創業129年 - 老舗旅館の"チェックイン"に革命を起... 大学生向け 長期インターンシップ	 2019.09.18 UP 料理が出来なくても大歓迎! "Yahata"の本社に... 大学生向け 長期インターンシップ
 2019.08.07 UP 民間まちづくり会社でインターン! 集落支援コーディネ... 大学生向け 長期インターンシップ	 2019.06.12 UP 【募集終了】廃校となった小学校の活用プランづくり... 大学生向け 長期インターンシップ	 2019.06.12 UP 全国ニッチトップの建設コンサルタントに密着! ライタ... 大学生向け 長期インターンシッ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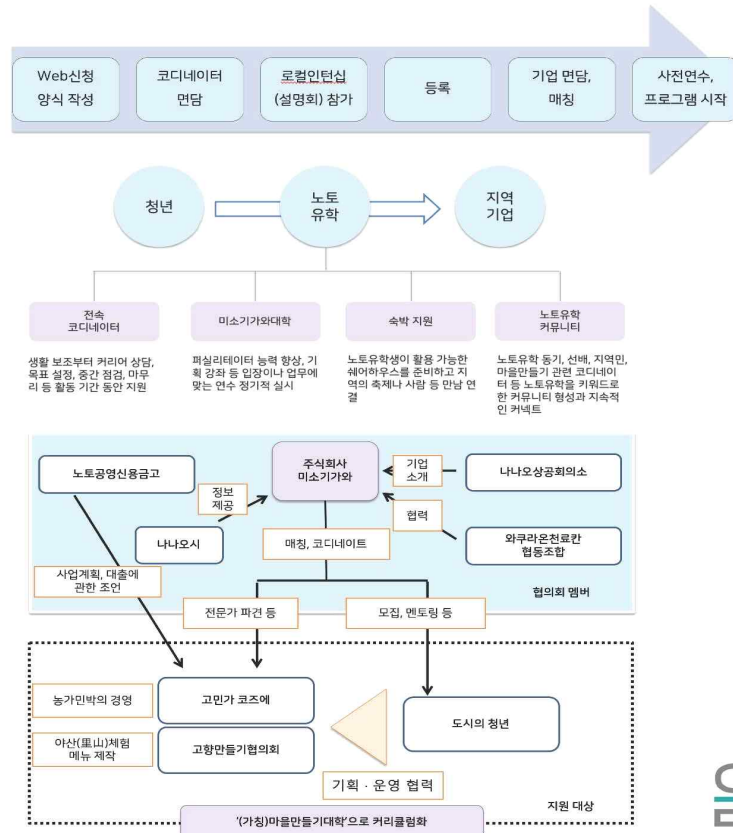
지역 청년 커리어 디자인 프로그램: 지역에서 자신다움, 삶의 방식을 그리는 것

일본 혼슈섬 중부, 이시카와현에 위치
과소화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토 지역에서 청년을 인턴생으로 대칭
지역활성화와 청년의 성장을 연결
지역의 상공회의소, 공영신용금고, 지자체, 민간,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중소기업 등이 '나나오유학추진협의회' 결성
지역활성화를 현장에서 배우는 청년과 지역 과제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함께 배우는 미소가가와대학 설립
대학생, 사회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2010~2018년 1~2개월 프로그램 90명, 3개월 이상 83명, 총 173명 참여, 75% 이상 외지인

일습

외국 사례

일본 노토유학 能登留学



일습

외국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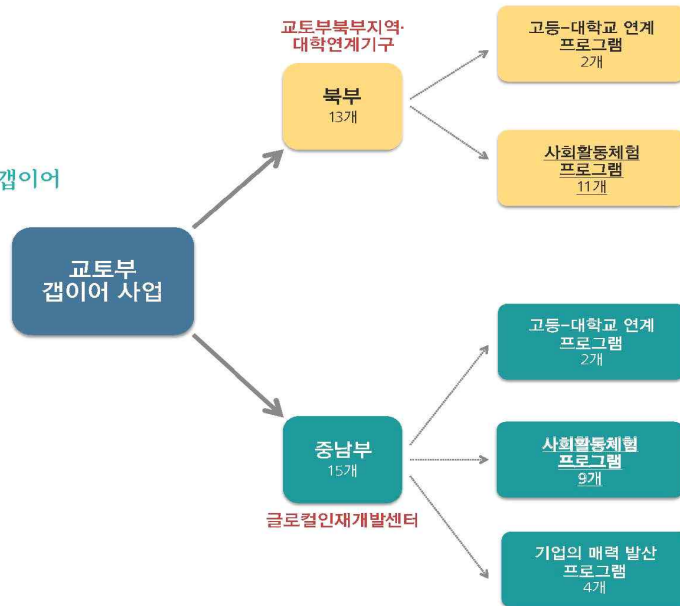
일본 노토유학 能登留学

프로그램명	폐교가 된 초등학교 활용계획 만들기! 주민의 '하고 싶어!'를 끌어내는 뜨거운 여름 시골 인턴!
유형	대학생 대상 / 단기인턴십
대상자	· 장래에 지역을 테마로, 중심으로 한 일이나 생활 형태를 하고 싶은 사람 · 연령을 불문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만들기에 즐겁게 임할 수 있는 사람 · "나라면 어떻게 할까?"를 기본으로 사물을 생각하고 행동 할 수 있는 사람 · 시골 생활에 몸 담으면서 일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 양면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생각하고 싶은 사람
얻을 수 있는 경험	· 노토의 시골 생활 체험 (여름 버전!) · 지역의 마을이 담긴 초등학교(폐교)의 활용 계획 만들기로 지역에 공헌하는 경험 · 마을에 살면서 지역 주민과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에 녹아들어가는 경험 · 많은 "누군가"의 마음을 모아 형태를 만들어가는 경험 · 일이나 생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다운 커리어디자인을 생각하는 경험
프로그램명	율무의 6차산업화 마케팅을 통해 농가 소득을 UP시켜라! 일본의 농업을 바꾸는 인턴
유형	대학생, 사회인 대상 / 장기인턴십
대상자	· 장래에 지역을 테마로, 중심으로 한 일이나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 · 연령을 불문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만들기에 즐겁게 임할 수 있는 사람 · "나라면 어떻게 할까?"를 기본으로 사물을 생각하고 행동 할 수 있는 사람 · 시골 생활에 몸 담으면서 일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 양면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생각하고 싶은 사람
얻을 수 있는 경험	· 노토지역의 시골 생활 체험 (여름 버전!) · 전심인 어른과 함께 세계의 식(食)을 바꾸는 전심의 도전. · 마을에 살면서 지역 주민과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에 녹아들어가는 경험 · 많은 "누군가"의 마음을 모아 형태로 만들어가는 경험 · 일이나 생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다운 커리어디자인을 생각할 경험

일습

외국 사례

일본 교토부 갱이어



참여단체

toringo 마이즈루마을만들기팀kokin
닛세이 고등학교

교토부북부지역·대학연계기구
구름의들판사 youthtelescope
SoiLabo 단나이즈
아마카미계획 교탄고시
사토야마넛도·아야베 toringo

교토부 하경 경찰서
교토산업대학 경찰학·사회안전연구소
일중학생 교류단체 freebird
타쿠·타쿠

교토 단바식과 술의 교류 협의회
교토부 난단광역진흥국 농림상공부
우타노유키스호텔 타쿠·타쿠
시엔 교토부 하경 경찰서

교토신용금고
주식회사우에다본사
주식회사카타오카제작소
주식회사아미타홀딩스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능력 제고, 인생의 다음 단계 준비, 지역 공헌

지자체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공공인재양성 일환, 연중 상시프로그램 운영
고등학교 졸업생(대학입학예정자 및 취업준비생), 대학, 대학원 재학생 및 취업 준비생
교토부, 교토부 내 자치구, 지역대학, NPO, 기업이 공동참여

일습

외국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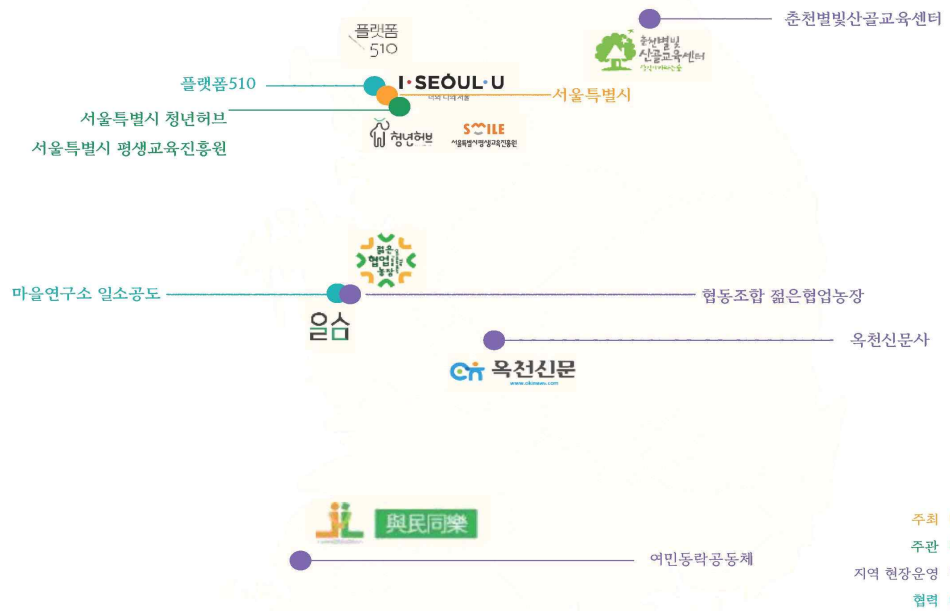
일본 교토부 갱이어

프로그램명	주최	내용	참가자
기간한정! 쿠모하라탐정사	구름의들판사 (임의단체)	쿠모하라지역에서 인터뷰나 시찰을 통해 체류정기화를 제안 (6박 7일)	대학원생 1명 대학생 2명
살아가다'를 생각해보는 필드워크 in 마이즈루	toringo (사단법인)	마이즈루의 생활정보사이트 제작기획에 참가하여 마이즈루에서의 살아감과 자신들의 살아감을 생각한다. (5박 6일)	대학생 3명
오카다주의 레시피: 식문화를 전하는 프로젝트	SoiLabo (임의단체)	향토식 계승을 생각하는 활동에 참가하여 청년의 시점을 살린 정보발신 방안을 제안한다. (5박 6일)	대학원생 1명 대학생 2명
시카사토 아마카미신문	아마카미계획 (임의단체)	지역 주민도 모르는 새로운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신문에 실는다.	대학원생 2명 대학생 4명
나'를 생각하는 여행	아마카미계획 (임의단체)	일주일간 시카사토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자신을 바라보고 지역을 바라본다. (6박 7일)	대학생 3명
사토야마넛도를 체험해보는 여행	사토야마 넛도· 아야베 (NPO)	NPO 활동에 참여하며 활동의 정보 발신 방안을 제안한다. (6박 7일)	대학원생 1명 대학생 4명
교탄고×대학생in아미노	교탄고시 (지자체)	아미노 촌에서의 현지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관광」과 「생활」의 접점을 생각한다. (5박 6일)	대학원생 1명 대학생 3명
돌아보는 여름여행 워크숍	youthtelescope (임의단체)	워크숍 방법을 검토하고 실제로 기획, 프리젠테이션 및 보고서를 작성해본다.	대학원생 3명 대학생 16명
재해·방재에 대해 후쿠치산의 수해 사례에서 배우는 스터디 투어	단나이즈 (임의단체)	태풍 18호 피해 지역을 시찰하고 지역 수해의 역사를 공부 한 후 방재에 대한 학생들의 제언	대학원생 1명 대학생 2명
youthtelescope	교토부 북부지역· 대학연계기구 (사단법인)	「젊은이의 경력 형성」「지역 진흥·지역 과제 해결」을 미션으로 활동하는 학생 자율 조직을 설립	대학원생 1명 대학생 8명
교토 갱이어 후기 성과보고회 기획·운영	교토부 북부지역· 대학연계기구 (사단법인)	성과보고회 기획·홍보 및 당일의 전체 운영	대학생 9명

일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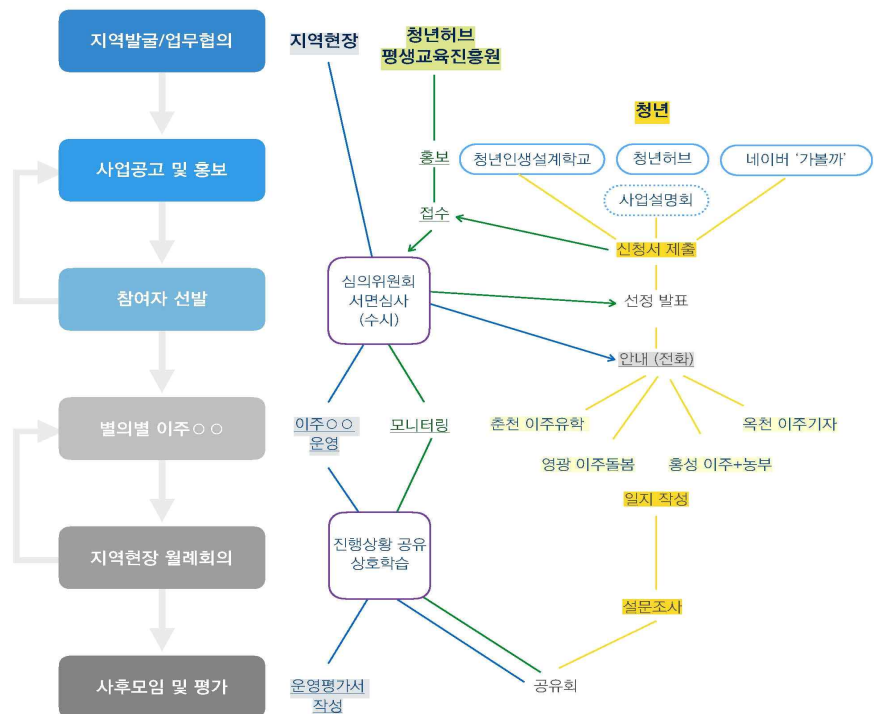
국내 사례

청년
삶의경로탐색
프로젝트
별의별 이주○○



국내 사례

청년
삶의경로탐색
프로젝트
별의별 이주○○



국내 사례

청년
삶의경로탐색
프로젝트
별의별 이주○○



은스

시사점

청년
삶의경로탐색
프로젝트
별의별 이주○○

사람

보기가 아니라 되기

○○학교 학생, 로코회사가 아니라 자연인 *** 이 되기
사회적 범주-그룹이 아닌 개인으로 존재/인식/참여할 수 있는 이주
기능적 관계가 아니라 일부가 되기: 보기(looking)이 아니라 정체성을 구성하는 본질을 만나고seeing 이해하는 것
감정이입적 내부성: 장소의 의미에 마음을 열고 느끼고 장소의 상징을 알고 존중하려는 흔쾌한 마음

에드워드 텔러, 2005

장소

‘인류학적 장소’로서의 지역

농촌 시골마을이 아니라 '충남 홍성군 장곡면 도산2구' 특정한 환경과 역사, 맥락, 사람들이 있는 고유한 장소:
'역사가 깃들여 있고 다른 사람들과 유대를 창출하며 개인의 정체성에 준거를 제공'하는 '인류학적 장소'로서의 2주
'장소성을 경험하는 것은 진정성으로 가는 징검다리'
세상을 내다보는 안전지대를 가지는 것, 사물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파악하는 것, 특정한 어딘가에 의미 있는 정신적이고 심리적 애착을 가지는 것: 장소에 대한 배려와 관심 :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의 기초

에드워드 텔러, 2005

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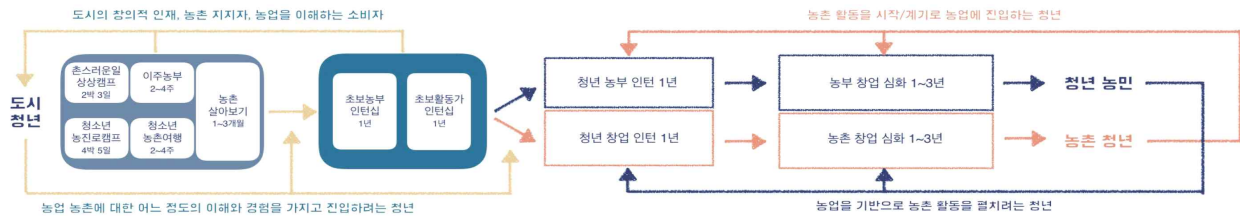
‘동료됨의 시공간’

청년들을 초대할 자리, 참여할 기회: 무엇을 함께할 수 있고, 무엇을 함께할 수 없는가
조건 없는, 정착을 요구하지 않는 환대
참여청년과 지역, 지역과 지역, 서울과 지역, 서로의 질문, 고민을 공유하게 되었는가 /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공공성이 창출되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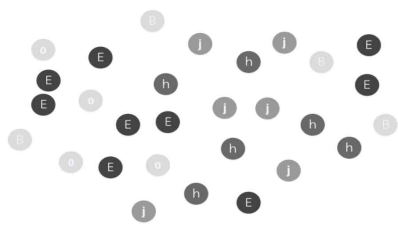
김현정, 2015

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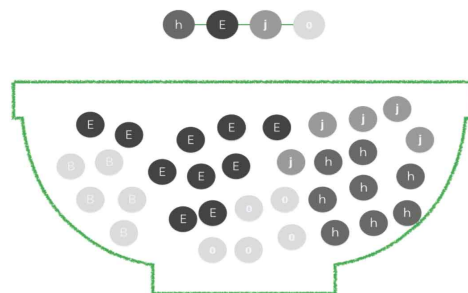
단계별·통합적 지원



개별 정책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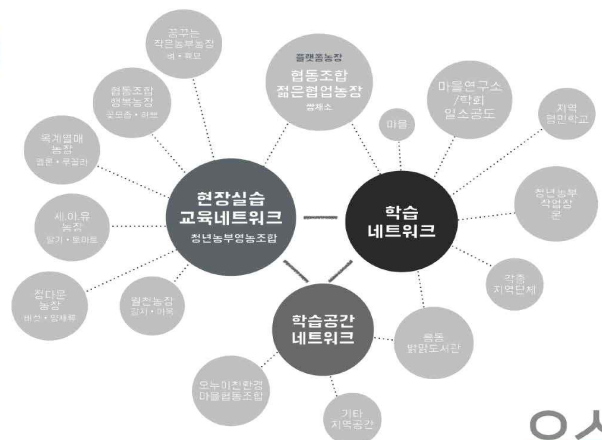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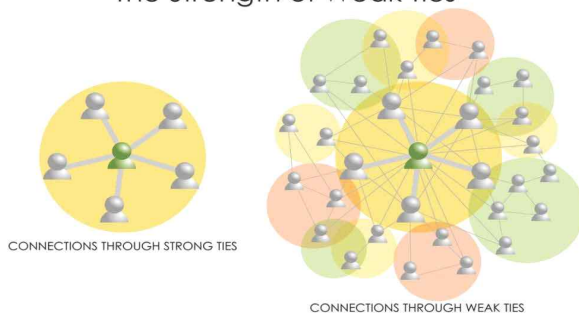


지역사회

일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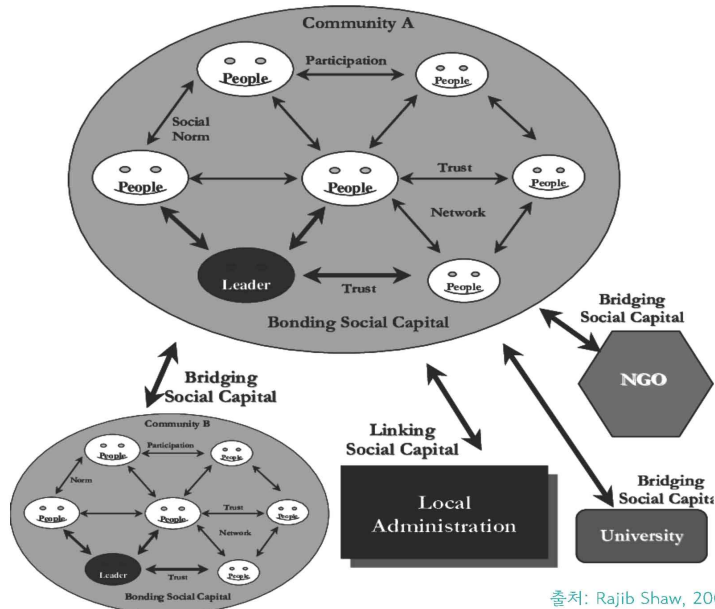
지역 네트워크 확대: 학습, 논의, 협력

The Strength of Weak Ties



일습

거버넌스 역량 강화 > 사회적 자본 구축



출처: Rajib Shaw, 2004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신 소 회

010-3131-1909
maeulogylab@gmail.com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은

삶과 얹이 하나 되는 농農의 실천을 바탕으로
온전한 마을의 삶을 상상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인
마을학회 일소공도의 취지에 따라 설립했다.

마을사람들 스스로 공부해서 마을의 문제를 풀어가려는
마을학회 일소공도의 다종다양한 실천 가운데 하나인 연구와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한다.

일만 하면 소가 되고 공부만 하면 도깨비가 된다는

일소공도의 가르침은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의 연구 학습 활동 등을 이끄는 지침이다.

넓게 보고, 깊게 탐구하며,

농업·농촌 문제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쓴다.

충청남도 청년 일자리 정책 활성화 방안

강 석 주

충청남도 청년정책과장

1. 충남 산업 및 고용동향

(1) 충남 산업 동향

- 충남의 산업구조는 지역 내 총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1차 산업 4.1%, 2차 산업 63.5%, 3차 산업 32.4%로 구성됨
- 전국 평균 대비 2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 산업 간 불균형을 보임

<충청남도 산업 구조>

(단위: 백만원, %)

구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부가가치	비중	부가가치	비중	부가가치	비중
전국	34,271,083	2.3	527,476,681	35.4	931,279,451	62.5
충남	4,291,471	4.1	66,377,247	63.5	33,821,553	32.4

자료 : 지역내총부가가치(행정구역별/경제활동별), 2016, 통계청

- 충청남도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제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은 모두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림어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부권의 비중이 높음

<충청남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단위: 개,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체	158,308	161,612	166,247
종사자	858,314	879,988	897,794

자료 : 각 년도 충청남도 사업체조사, 충청남도

- 충남의 인구는 2040년까지 상승한 뒤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됨
 - 대한민국의 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 예측되고 있음
 - 특히, 청년층과 30대 인구 감소율은 전국 평균보다 더 낮은 수준임

<충청남도 인구 추계>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전국	51,780,579	52,609,988	52,941,342	52,833,722	52,197,882	51,051,159
충청남도	2,203,891	2,291,157	2,363,022	2,410,912	2,430,229	2,420,630

자료 : 장래인구추계, 2017, 통계청

(2) 충남 청년 고용동향

- 충남의 청년고용지표는 2017년 이후 점차 개선되다가 최근 다시 악화
 - 2019년 1/4분기 기준 청년 고용률은 48.2%로 전국 1위 달성
 - 3/4분기 기준 청년고용률은 43.4%(전국 43.9%), 청년실업률은 9.5%(전국 8.1%)로 전국 평균보다 충남의 청년 고용지표는 저조한 상황



- '18년 전국 기준 청년실업률*은 10%로 전체실업률(4%)의 2.5배이며, 청년체감(확장)실업률**은 23% 수준

*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 고용률(%) = (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 청년체감실업률 =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 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등을 고려한 지표

2.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성과

(1) 청년 일자리 조직 이력 현황

- 2017년 일자리노동정책과 내 청년일자리팀 신설
- 2019년 일자리노동청년과 내 청년정책팀 배치
 - 청년정책 중 일자의 중요성 강조 및 창구 일원화
- 2020년 청년정책과 신설 : 3팀(청년정책팀, 청년사업팀, 청년소통팀) 11명
 - 청년정책 추진 전담부서 신설 및 기능강화

(2) 지역 여건에 맞는 상향식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18. 7월부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추진
 - 지역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시·군)가 기획·시행하는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큰 특징(지역·현장 중심 상향식·분권형)
 - 청년 실업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21년까지 지역여건에 적합한 지속적이고 발전가능성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예정
- 2019년까지 112개 사업 311억 투입, 1,762명 청년일자리 창출, 2020년에는 71개 사업 1,606명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361억 투입예정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사업수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업부담
합계		3,368	67,307	32,112	19,763	10,310	5,122
2018	30	472	10,698	4,539	4,304	1,855	-
2019	82	1,290	20,456	9,715	5,742	3,303	1,696
2020	71	1,606	36,153	17,858	9,717	5,152	3,426

- 수도권 등 도시청년(18~39세)의 지역정착 유도, 정규직 채용, 사업자 등록 완료, 일 경험 제공, 민간취업 연계 효과
- 만족도 조사 결과, 경력단절여성의 참여와 만족도가 특히 높았음

(3) 구인 및 구직자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노력

- 찾아가는 청년일자리 버스 운영
 -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 '19. 9월 이후 도내 전 지역 운행(주 4회)
- 충남 취·창업 카페 6개소 선정 및 운영
 - 천안 1, 아산 2, 공주 1, 홍성 1, 청양 1
 - 취·창업 특강 및 컨설팅 배치, 취업성공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 일자리 박람회 개최·지원(도 및 시·군)
 - 아산 순천향대학교 개최('19.11.7.) / 총 251개사, 2,953명 참가

(4) 충남형 창업생태계 구축 노력

- 충남 창업마루 '나비(Start-Navi)' 개소 및 운영
 - 위치 :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농협시지부 4~5층 / 2019. 11. 21.
 - 시설 : (4층) 시제품 제작소, 코워킹 스페이스, 스튜디오 회의실
(5층) 창업기업 보육실(17개, 50명) / 12개 기업 입주
- 마을창고 활용 청년 창업 공간 2개소 조성
 - 당진시 면천면, 부여군 규암면 330㎡ / 2019. 12월말 준공
 - 코워킹 및 네트워킹 공간(230㎡, 오픈형) / 청년 창업공간 및 회의실

(5)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일자리 및 창업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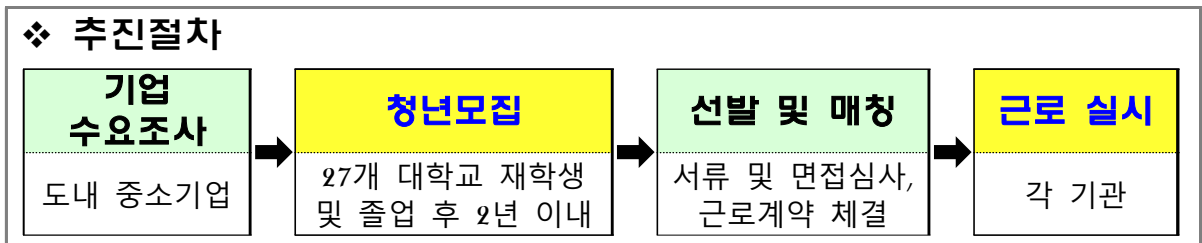
- 충남 스타트업기업 청년채용장려지원 사업(75개 기업, 125명)
 - 자금부족으로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기업에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 발판 마련
-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 지역대학 우수인재의 직접적인 채용 지원을 통한 고용활성화
 - 현장실습형 75명, 채용전제형(정규직) 12명 청년일자리 창출

-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사업
 - 고졸취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 도내 37개 직업계고 졸업생 대상 지속가능한(정규직) 직접일자리 창출(104명)

3.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역대학과의 체계적인 취업지원체계 구축 및 직업계고 우수인재 양성

-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사업(20명)
 -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지역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2년 이내) 대상,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 직접일자리 제공, 인건비 등 지원



- 충남형 계약학과 육성사업(2개소)
 - 도내 계약학과* 지원(등록금, 학과운영비, 훈련비 등)을 통해 대학교육과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 간 미스매치 완화
 - * 9개소 중 '19년 1개소 → '20년 2개소 공모·선정(연차별 확대)
-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운영(2개소)
 - 도내 대학일자리센터 2개소(고용노동부 지정)를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허브 Y+센터를 운영, 진로지도 및 취·창업 프로그램* 개발·운영
 - * 취업역량강화 교육, 진로멘토링, IP캠프, 카페트릭, 취업 서포터즈 등
-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사업(104명)
 -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도내 37개 직업계고 졸업생(또는 졸업 예정자) 대상 지속가능한 (정규직) 직접일자리 창출 지원
 - * 교육청 지정 '현장실습 선도기업' 등과 연계, 직무적합성, 안정성 등 고려

○ 충남 희망이음 프로젝트(40회)

- 도내 청년과 우수 지역기업 간 상호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역인재 유출방지를 위해 기업탐방, 채용행사 등 운영

(2)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고용창출 지원

○ 충남스타트업기업 청년채용장려지원사업(152명)

- 초기 창업기업이 우리 도에 정착하고 유능한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스타트업 신규인력 채용 지원

○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200명)

-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청년 채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유출 방지 및 시·군별 채용인원 분배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활성화 도모

*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자활기업, 영농·영어조합법인, 지역 향토기업 등

(3) 지역정착·고용창출 유도 및 청년일자리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5개 시·군 / 63개 사업 1,060명)

- 충남 거주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3가지 유형 사업, 인건비, 교육비, 취·창업 지원비 등 지원

사업유형	① 지역정착지원형 : 일자리 + 정주여건 지원으로 지역정착 유도 ②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 창업지원(임대료, 교육비, 컨설팅 등), 고용친화적 생태계 조성 ③ 민간취업연계형 : 일 경험 + 직무교육으로 민간취업 연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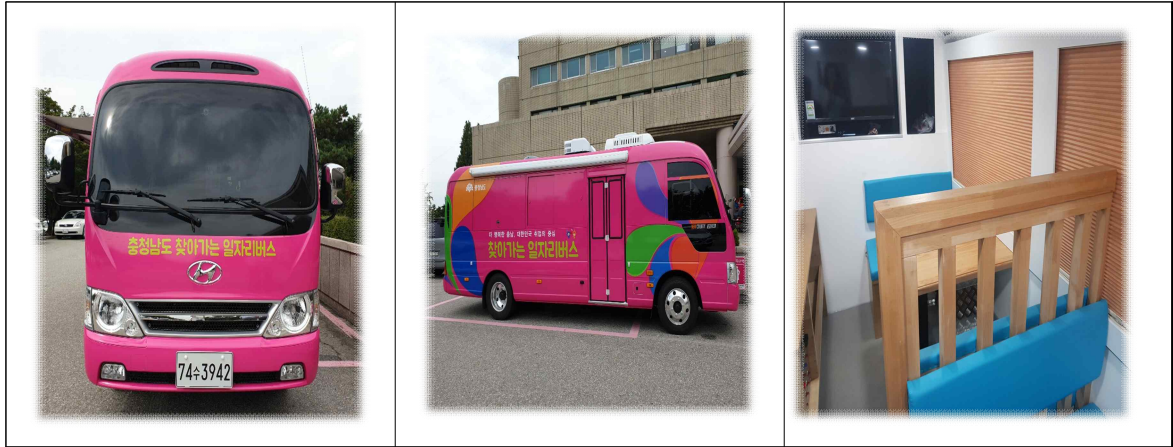
- 시·군에서 발굴한 지역일자리를 중심으로 청년실업문제 해소

○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달라지는 주요사항

① 참여청년의 지속참여율 제고 : 3년차까지 근무시 인센티브(1,000만원)를 청년에게 지급,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허용(다만, 공제가입 시 인센티브는 미지급) ② 신속한 사업 추진 : 광역단위 통합공고(1.10.)를 통해 사업참여자 조기 모집(~2월 예정) ③ 사업장 관리 강화 : 지속발전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간담회, 현장점검 강화
--

○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1대 / 6개소)

- 도내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밀착형 취업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일자리버스를 이용한 맞춤형 구인·구직상담 및 정책홍보



- 지역 청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민간카페를 충남 취·창업카페로 지정, 1:1 개인별 맞춤 상담, 취·창업 특강,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

카페 운영 현황	1호점	고고쓰 커피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8-2	민간카페형
	2호점	커피오감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56번길 40	
	3호점	공정문화예술 연구소 슝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열길 11, 2층	네트워크 공간형
	4호점	공주창고	공주시 백미고을길 9-1	민간카페형
	5호점	커리어키움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나사렛대 사랑관 2층	네트워크 공간형
	6호점	카페옛봄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84-7	민간카페형

(4) 청년일자리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운영

- 그 동안 다양한 청년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정책화하였으나, 이 사업들에 대한 성과분석, 평가 및 피드백, 컨설팅 기능은 부족
- 사업의 신설, 유지, 일몰에 대한 전문가(청년 포함) 모니터링 실시
- 이를 통해, 도 및 시군 여건에 맞는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 발굴로 청년고용환경 개선 및 사업 효과성 제고

< 참고 : 2020년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지원대상) 만 18~64세, 중위소득 120% 이하(청년층은 120%↑), 미취업자
-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일경험·알선),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 (특이사항)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유관사업은 본 제도로 통합

② 개인 생애 맞춤형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시행

- 개인의 생애에 걸친 맞춤형 능력개발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 (지원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
- (지원내용) 5년간 총 300~500만원(5년 후 재발급 가능)
- (특이사항)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을 통해 다양한 기관의 교육과정 수강

③ 구직청년 및 청년채용기업 지속 지원

- 청년-중기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일자리 3대 핵심사업 지속 추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 '19년 20만명 → '20년 29만명,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설정 등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간 공동적립을 통한 1,600만원의 목돈마련 지원
※ '19년 25만명 → '20년 34.2만명, 임금상한 하향(월 500→350만원) 등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하고 고용서비스 내실화

예산군 청년 정책

강 선 구
예산군의회 의원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농촌으로 오고 싶다면 z에게

정 민 철

젊은협업농장 상임이사

청년들은 말한다. 농업을 하고 싶다고, 농촌에 살고 싶다고...

‘음, 지금 시기에 귀한 생각을 하는 청년이구나.’ 그들이 생각하는 농업과 농촌은 참 멋진 것 같다. 자기가 먹을 만큼만, 작은 규모에서 최소한의 노동으로, 이를 통해 자급을 하고 싶어 한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무슨 무슨 농법으로, 또 몸에 나쁜 화학물질(전자파 포함)은 일절 몸에 들어오지 않게, 더군다나 나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자연의 품속에서 살고 싶다고 한다. 4시간 노동하고 4시간 자기를 위해 살고, 도시의 찌든 삶을 벗어나 여유롭고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도시와 다른 공동체적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런 농촌이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가고 싶다고 에둘러 답한다. 속으로는, ‘그럼 지금까지 반평생을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일을 못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노동하고 있는 건지, 아님 너무 경제적 욕심이 많아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아이디어가 없어 충분히 부가가치를 못 만들어 내는 건지, 아님 배운 게 없어서 문화를 향후할지 모르거나 일만 해도 삶에 만족하는 걸까’라는 질문이 입천장을 뱅뱅 돈다. 아마, 이 말을 뱉는 순간 ‘꼰대’라는 무지막지한 일반화로 도매급으로 넘어가겠지. (뭐, 이건 사실이지만.) 대화 상대 명단에서 아예 빠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 생각에 더 기분이 나빠지면서, 그냥 입천장에서 맴돌던 말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다. 아니 어쩌면 이건 관심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고, 많은 경우는 다른 사람 연락처를 주면서 연락해보라고 하고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 농업단체는 말한다. 농사는 우리가 지을 테니까 농사지을 사람 말고 농업 실무자를 좀 보내 달라고. 농민단체에서 농업, 농민의 관점을 가지고, 밤을 새워 일할 투지와 의지와 열정을 가진, 더군다나 실무 능력까지 갖춘 - 하나 더 붙이자면 적은 임금으로도 오래 일할, 한마디로 하면 자기 인생을 투신할 - 사무장, 회계 담당, 유통 담당, 도농 교류 담당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난 고등학교만 졸업해서도 이 정도 하는데, 더 배운 사람들은 더 잘하지 않겠나, 라는 말도 덧붙인다.

요즘 청년들이 생각하는 삶은 우리와 또 다른 것도 있을 것이고 예전같이 서클을 통해 투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교육이 아니라고 말하고, 좀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고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서 사람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원론적인 답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이렇게 대답하면 지금의 농촌 현실, 지금의 농촌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기다리다가 농업, 농촌이 무너질 정도로 절박하다는 말을 하니 답은 점점 궁해지고 받아 놓은 소주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자꾸 사라진다. 만약 당신의 자녀라면 앞에서 제안한 그러한 조건에서 일을 시킬 수 있겠냐는 말이 입에서 뱅글뱅글 돌지만, ‘농촌 일꾼이 아니라 도인같이 생활하려는 청년들만 들어오는 것 같다’는 뼈아픈 말이 등장하면, 차마 내뱉지 못하고 소주와 함께 삼켜 버린다.

지역 농민은 말한다. 아니 도통 뭐한다고 집 마당의 풀도 깎지 않고, 바이오 무시긴가, 태평양 무시긴가 하는 농법을 한단데 논, 밭의 작물은 풀 속에서 찾아야 보이고, 개(고양이)만 안고 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도통 뭐 먹고 살려고 하는지……. 쫓쫓 혀를 찬다. “네, 요즘 청년들이 좀 그런 면이 있지만 그냥 좀 두고 보시죠.” 아니, 돈 벌 수 있는 작물을 알려줘도 안 하고, 푼돈이라도 벌라고 동네 사람들 일 갈 때 같이 가자고 하면 바쁘다고 하고. 동네 행사에 부르면 얼굴만 빼죽 보이고 사라져 버리고, 찾아가도 집에도 잘 없어. 먹고살려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몸뚱아리 굴려야 하는데, 그래서 자기 땅이라도 있고, 돈이 솔솔 들어와야 농사짓는 재미도 있지. 남의 땅 조금 얻어서 저렇게 해서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 청년들은 또 왜 이리 농사일을 일찍 마치는 것이여? 아직 해가 남아 있는데 가 보면 농장에 사람이 없어. 다른 곳에 농지가 있어 일하러 가나? “아뇨. 청년들이 공부도 해야 하고 문화 활동도 해야 하고. 요즘 청년들이 좀 별나죠?” 그러, 그렇게 해야지, 뭐. (돌아서면서) 쫓쫓, 장정들이 잠도 안 자고 일해야지 이 시골에서 무슨 개뼈다귀 같은 문화 활동을……. 그래도 농촌, 농업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많은 청년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고, 이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어야 농업이 지속 가능하고 농촌이 활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하려고 고개를 들면, 굽은 허리와 갈라진 손등과 검게 그을리고 깊이 팬 이마의 주름부터 보인다. 내 머릿속에서도 참 배부른 소리고, 전직이었던 선생 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우리는 아마 위의 세 가지 입장이 겹치는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 듯하다. 어디에

장단을 맞추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어렵지만 농촌에 올 때 생각해야 할 무언가는 있을 듯하다. 어쩌면 농촌은 단순할지도 몰라. 더 복잡한 것은 농촌에 오려는 청년들의 생각이 수십, 수백 가지라는 점이지. 다가올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는 블루오션이 농업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부터 생태적 삶이라는 새로운 삶의 형식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농촌이라고 생각하는 청년까지 농촌을 선택하는 이유는 너무 넓으니 뭐라고 꼭 집어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듯하다.

최근 연구 보고서를 보면 현재와 미래를 모두 부정적으로 보는 청년들(20~30대)이 지속적으로 증가(2013년 34%, 2015년 45%)하고 있고, 40~50대 역시 다수가 붕괴-새로운 시작을 미래 사회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 농촌을 선택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들이 말하는 새로운 시작은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이웃과 소통 나눔, 환경 친화적 삶, 노후 등 성장주의를 중심에 두는 현 사회에 저항하면서 다양한 삶의 양식을 보존하고 사회의 경계인을 보호하는 사회라고 그 보고서에서는 말하고 있다. (〈한국인의 미래 인식, 사회 분위기, 미래 적응력 조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년) 나는 지금 청년들이 참 똑똑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은, 그리고 그러한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라고 수십 년을 교육받고,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 기술을 배운 상황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청년들의 보수화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농촌에 오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하나는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말아야. 공동체, 환경 친화, 이웃과 소통, 지역이라는 소규모 커뮤니티, 농업 등 우리가 새로운 미래와 연결시켜 떠올리는 단어와 이어지는 생활, 삶을 살아 본 적이 없다는 거지. 물론, 책을 통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글에 공감을 하고 머리로 이해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몸은 냉철한 머리와 달리 붕괴되었으면 하는 사회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면 한다. 머리 역시 현실의 상황에서는 합리성, 논리성이라는 붕괴 사회의 접근 방식을,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또한, 책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결론은 있지만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과정, 특히 그 과정의 힘들, 그 과정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그래, 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20년을 배웠는데 뭐를 또 배우냐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배운 것은 붕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실이고, 배워야 할 것은 새로

운 사회에 관한 것이겠지. 그 배움은 단지 책으로 도서관에 앉아서 교실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배우는 것이 아닐 듯하다.

“한국에는 협동조합의 전통이 거의 없다. 자마니 교수의 얘기는 에밀리아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오랜 전통이라는 것 아닌가? 짧은 시간에 에밀리아 로마냐와 같은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2주 전에도 캐나다의 학자와 협동조합 활동가들이 다녀갔다. 매년 여름에 2주 동안의 협동조합 코스를 개설하는데 이들은 매년 빠지지 않고 온다. 실제로 밴쿠버 등지에서는 여기서 배운 것이 현실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책과 논문으로 알 수 없다. 필요한 것은 이 지역의 문화를 느끼고 체득하는 것이다. 밥도 같이 먹고, 같이 토론하면서 알아 나가야 한다.”

- “협동을 통한 평등한 사회, 꿈같은 세상은 가능하다 - 스테파노 자마니 볼로냐 대학 경제학과 교수 인터뷰”, <오마이뉴스>, 2010년 12월 11일

이에 대한 기자의 생각이 아주 정확해. “이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단시간에 모든 걸 해결하는 묘약이 있을 리 없다. 그러나 문화라니……. 이건 더 절망적이다.” 그래, 이 생각이 필요할 듯하다. 새로운 사회가 그렇게 쉽게 될 리는 없으니까 말이다. 절망적일 정도로 어려운 것이겠지. 그 절망을 어떻게 견뎌 낼 것인가가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농촌에 와서 지역의 문화를 느끼고 체득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토론하면 새로운 사회에 대해 알 수 있냐고? 농촌이 그러한 새로운 사회이거나 준비가 된 곳이냐고? 앞에서 말했지만 아니지. 역시 아니지.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더 경쟁적이고, 더 각박하고, 더 경제적인 발전에 목을 매고, 더 바쁘고, 더 보수적이고……. ‘더 어찌고’를 수십 가지는 더 말할 수 있다. 청년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농촌은 새로운 사회이고 그곳에 가면 내가 생각하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도시에서 느낀 부조리를 농촌에서는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농촌에서는 나를 더 이상 소비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아니야. ‘더 어찌고’를 반복하자면, 농촌은 도시보다 더 에너지를 많이 쓰고, 더 비생태적이고, 더 기름에 의지를 하고, 더 가꿀 여유가 없는 곳이지. 그런데 왜 농촌이냐고? 지난해에 나온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보면 청년 귀농·귀촌의 네 가지 키워드 중 하나로 ‘틈’을 제안하고 있다.

‘경쟁에 치이고 친구도 경쟁자가 되는’ 도시의 구조 속에서 살던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이 협동해서 조합을 만든다든지 간담회를 연다든지’ 하면서 집단지성이 모여서 뭔가를 해결해 갔고, ‘자본이나 돈이 아닌, 사람이나 아이들, 땅의 힘 같은 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 나가기 시작했다. 지역은 청년들에게 도시에서와는 다른 탈자본화된 삶과 새로운 상상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틈이 되어 주고 있다. 이러한 틈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희망제작소 외 공동연구, 삼선복지재단 펴냄, 2015년

난 틈이 아니고 ‘여백’이라고 표현하는데, 농촌은 그런 일을 시도해 볼 여백이 있다는 말이야. 하지만 그것은 여백에 불과해. 보통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하지만 이 여백이 청년들에게 무언가를 창조해 나갈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여백은 아무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여백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우리가 농촌의 가치를, 불편한 그 여백을 발견하기 전까지 이 공간을, 이곳을 온몸으로 살아온, 어쩌면 지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그들은 도시와는 다른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합리성을, 그리고 그들의 생활방식을 터득하고 있을 거야. 왜냐하면 도시에 없는 땅과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이라는 활동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거든. 같은 한국인데 도시와 왜 다르냐고? 누군가는 농촌에 오는 것은 말만 통하지 국제 이민과 비슷할 정도로 생활 방식과 판단 근거와 관계 구조가 다르다고도 말하는데, 앞에서 말한 새로운 사회의 기초가 되는 지역과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대도시의 삶의 방식, 대도시의 합리성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곳 말이야. ‘그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농업을 직접 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으로 자기 삶의 생존을 걸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 - 물론, 그냥 자기 밥벌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농민들과 엮어서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 보는 것 - 이고, 아니라면 농민단체, 지역주민들과 깊은 교류를 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그들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판단하는 방식과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어느덧 땅과 농업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이런 말을 할 거야.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지. “이렇게 살려고 농촌에 왔나?” 이렇게 살려면 도시에선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데……. 맞아 나도 그렇게 말하니까.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경우에 그냥 소집단 또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그냥 실천해 버

리지. 그래, 농촌에서도 도시와 같이 혼자, 익명성을 가지고, 사생활을 충분히 보장받으면서 살 수는 있을 거야. 또, 답답하고 예의 없다고 보여지는 농촌 사람들과 달리 나의 삶의 지향점, 내가 추구하는 삶을 바로 실천해 버릴 수도 있을 거야. 혼자가 힘드니 종교, 정치, 사상적으로 유사한 우리끼리 모여서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지면 주변 모든 사람들은 바로 ‘너희’가 되어 버려.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너희들에게 왜 참견을 받아야 하냐고 논리적이고 소위 합리적인 이론을 펼 수 있어. 난 행복한 나의 삶을 살려고 왔을 뿐이라고 결론을 내릴 거야. 맞아.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나도 ‘협동해야 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하고, 주위 사람을 존경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뭐 이런 느긋거리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안 해도 되니 ‘우리’끼리만 그렇게 하지는 말아 달라고 말하고 싶다. 이들은 혼자, 익명적으로, 우리끼리만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공간에 비집고 들어온 이물질이 될 가능성이 높아. 차라리 혼자 조용히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농업을 직접 해 보라고 말했지만 농업만 하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농촌이, 그리고 농업이 살아남는 방법은 이것을 둘러싼 수많은 직능단체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이 외롭게 농산물만 생산하여 판매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어찌면 농촌을 도시를 먹여 살리는 ‘식량 공장’ 정도로 보는 것이다. 농촌 지역은 농촌 지역대로 자기의 완결성과 삶의 영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한양보다 더 오래 지속된 곳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농업, 그리고 농업과 직접 연결되는 활동만 남고 모두 떠나 버린, 수십 년 동안 필요성을 모두 잊어버렸을 수는 있지만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은 대부분 있지만) 그 생명력, 활력, 건강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시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복원 과정이 단지 도시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한다. 농촌이 농촌다우면서 그 직능이 살아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 있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시작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사회라는 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하는 사회가 아니라 기존의 것이 새롭게 해석되고 내용에서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에서 배우라는 말을 또 하고 싶다. 지역 사람들 속에서 배우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내가 가진 재주가 결합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창업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기존의 직업과 달리 (직업명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두세 가지 일이 융합되어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측면에서 단지 업을 새로 시작하는 창업이 아니라 직업을 새로 만들어 낸다는 차원의 창업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것이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 농촌 지역에서는 너를 고용하여 월급을 주고 고용 조건을 협상할 고용주는 별로 없다. 취업이라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지역이 공간을 열어 주고 너 스스로가 너를 고용하고 지역 사람들이 협력해 주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근로 조건과 고용 조건을 우리나라 평균 - 그 평균값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 과 비교하지 말고 지역 사람들, 너를 지원해 준 지역 농민들과 비교했으면 한다. 나는 자기의 터전이 없는 글로벌 인재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산업 인재가 아니라, 지역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인재는 세계 어디를 가나 동일한 방식과 수준으로 일할 수 있겠지만, 지역 인재는 자기가 몸담은 지역을 배우고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과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인재보다 지역 인재가 훨씬 창의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한 지역만 아는 지역 인재가 아니라 지역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을 알고 있는 지역 인재 말이야.

지역 리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다.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지역 어르신들이다. 어르신들이 우리를 위한 사업만을 벌인다면 우리 지역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지내기 좋은 곳이 되고 그럼 또 다시 어르신들만 들어오게 된다. 어르신들만 모여 사는 사회, 그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농촌인가? 사업 내용을 고민할 때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있으면 나의 자식이나 손주에게 참 좋겠다고 판단되는 일을 했으면 한다. 그러면 자식이나 손주뻘 되는 사람들이 좋다고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다양한 세대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좋은 농촌이 아니겠는가? 그 결정권은 바로 어르신들에게 있다.”

만들어진 새로운 사회에 들어가 개인의 삶을 누리는 것보다 아주 부족한 곳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하나씩 쌓아 가는 것도 재미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것이 더 창의적 활동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것을 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매우 힘들 거라는 말을 우선해야 할 듯하다.

청년 농업인의 판로 방안

김 면 중

예산군 청년농업인협의회 부회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단체, 예산군 청년농업인협의회는 농업에 종사하고 지역사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을 활성화 하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오늘은 제가 몸으로 느끼고, 회원들과 공감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협의회 월간 회의가 끝난 후 한 회원이 저를 부릅니다.

형님이 하는 작물을 하고 싶은데 어떤가요? 저는 의외였습니다. 그 회원은 제가 보기에 귀농한지 얼마 안됐지만 지금 하는 작물에 대해 노하우도 쌓였고,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유는 하우스가 두 군데에 나뉘어져 있어서 일의 연속성이 끊기고, 이모작이다 보니 인력이 많이 들어서 일모작 작물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는 배우고자 하는 욕망도 있고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필요한 것 농지, 농법, 노하우, 시세 네 가지를 대표로 생각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열정과 포부만 가지고 해결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와 맞는 농산물을 찾았고, 멘토와 농업기술을 통해 노하우와 농법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격이죠. 높은 시세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품질이라고 해도 해당 지역 특산물 또는 작목반에 있어야지 타지역보다 3에서 5천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입하려고 하려면 농지가 있어야 합니다.

귀농, 귀촌 하시는 분 애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마땅한 땅이 없어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농지가 필요합니다. 시험 삼아 농산물을 키우고 방향을 잡고 이 터전에 자리잡고

싶은데 말이죠.

이제는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운이 좋아 해당 특산물 작목반에 가입을 했고, 경매가는 전국에서 TOP3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해서 2년차부터 3년차까지 하우스별 목표량 110%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을 따져 보니 힘이 빠집니다.

19년도 매출대비 순이익이 62퍼센트입니다.

금액으로 한다면 5,000만원 매출이면 약 3,000만원의 순이익이죠.

이것으로는 농한기 및 20년도 농사 기초 자금 투입하면 마이너스 돌아섭니다.

제일 비중이 큰 인건비를 줄이면 두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큼 농작물을 줄여야 합니다.

농산물을 줄이면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분명 올 것 같다 생각이 들더군요.

또, 여기에 대출이 있다면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프라인은 수요가 많지 않지만 가격이 경매가보다 2배 이상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수량을 제외한 농산물은 경매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년 로컬푸드 매장에 신청서를 내고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니 농산물이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봐도 보입니다. 마트가 생활 반경에 있지 않고, 여기에서는 사 먹지 않고, 길러 먹죠.

도심과 관광지에서 판매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종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유통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수료를 제시하여 판매를 하면 지역 농산물과 유통이 상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MEMO

[illegible]

